

<보기>문학 초월자 - 산문편!

1

<고난이도 문항 접근법 - 산문>

1. O - (1) SO, (2) LO

2. WX

- (1) 지문A
- (2) 보기B
- (3) A-B

3. TS - (1) 안TS

- (2) 밖TS
- (3) 간TS

1. O
(1) SO

2009학년도 수능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이숙오 서씨의 품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맹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저뿔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

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발굽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를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B]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이었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한밤중에 딱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멍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질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건디가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 나란 늙은 아바 알 수 없는 놀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2

쓴웃음이 나왔다. ㉣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진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육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잠담 시간도 지나고 ㉤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밤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뭇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 미소를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무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라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욱, '역사(力士)' -

23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김승욱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맹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맹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맹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2006학년도 수능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태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열마를 그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잠인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락 붙인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뽀, 유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 북두도 나선다. 북두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흥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돋이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밝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돋이를 제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어찌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스로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필선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거드름이에 긴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껍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려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마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에게 말하고 있다. 윤에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짝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속소의 창에서 ㉔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려온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테시 점점 안으로 오르라 들고 있었다. 마치막으로 은혜와 돌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땡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로 들었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경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계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 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던단.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쫓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들.

㉕ 돌아서서 마스트***를 울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크로 뒤로 돌아선다. 계절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㉖ 그 저녁엔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습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㉗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시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맞 웃을 고운 작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말을 부러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 최인훈, 「광장」 -

* 콜호스: 구소련의 집단 농장.
**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들켜지처럼 쓰이는 물건.
*** 마스트: 돛대.

5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해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심학의 구체적인 의미라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 ②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③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 ④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 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2003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은음이 그날거리고 우서 잠은커녕 진드근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평계를 대고 빠져나갔던가는 기억해 낼 수 없다. 내가 다시 결혼 잔치가 끝나 갈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 발마당의 모닥불은 거친 사위에 버리고 사람 하나 없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풍장 소리와 노랫소리는 사립 울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멍석 너댓 보내기만한 안마당엔 어른들이 걸점으로 둘러서서 모두가 영딩이를 궁시궁시 들썩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참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구성진 가락은. “석탄 백탄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키가 모자라 사람 다리만 뻑뻑한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보았다. 그리고 놀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한 손으로 주안상 가장자리를 두들겨 가며 앉아서 노래하는 어른,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그녀는 아버지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얼마를 두고 돌아지게 바라보았으나 분명 아버지였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석공네 울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일 수가 없으련만, 모든 것은 눈에 보인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도 울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터였다. 일가 간인 한산 이가네로서 노인을 모시는 집안이거나 당내 간의 사랑이라면 더러 출입이 있었을 따름이요, 그것도 울안에 발을 들인 일이란 한 번도 없던 터였으니, 하물며 전에 일갓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네 집이겠던가. 신 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꿇어앉은 석공은 연방 싱글벙글 웃어 가며 속웃속웃하는 신명을 어찌지 못해 답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 시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드니 석공은 주전자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 들자 신 시방은 일어선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때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냐. 그것은 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일 일이 없게 근엄하되, 한내된 백사장에 강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물쟁이까지도 전을 걸어치를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으며, 산천이 들떠다 놓인다 싶게 불 뿜듯 웅변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부터 천둥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시, 액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경정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며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럴 법이 있을 수 있던 말인가. 남의 집 울안 출입에 와 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북스러움도 ㉔ 가져지고 있었다. 멍석 가장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 타래를 내던진 양배야배와 복산야배,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겨움에 감싸여 흐른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배움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나는 이만큼 뒤처져 걷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우리르니, 달은 어느덧 자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마만 하늘을 두른 채 왕소나루 가지 틈에 머물고 있었으며, 뒷동산 술수평이의 부엉이만이 잠 못 들어 투덜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 번 없이 여전 근엄하였고, 나는 버그하게 지켜 놓은 대문을 들썩거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여닫으며 들어가 이내 곤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이른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유 요가 걸편하니 한강이었고 아랫도리가 걸레처럼 적적했으나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삼십 년을 모시면서 보기를 참 보았다. 아마 평생 참이실 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저만 참인 중 알았다

니 아씨두유?” 응점이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 안 일이지만,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보인 일이란 그날 밤에 아버지가 손수 행한 바의 모두를 말함이었다. 귀로에 한쪽 발을 헛디뎈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마당가 우물 도랑물에 젖어 있었다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아버지의 거동은 오랫동안 여러 동네의 큰 화젯거리였을 줄 안다. 모두들 처음이며 아울러 마지막일 터임을 미루어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석공의 추억이 일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 놀았던 마당으로서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 번 객스럽게 돌아 보신 장소라는 데에 보다 소중함이 느껴져서 잊지 못해 해 온 사실을 밝혀 두고 싶다.

- 이문구, 관촌수필 -

52. <보기>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밑글을 비평한 것은?

-<보 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한 수밖에 없지만,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 중에서 ‘소설은 풍속(風俗)의 재현(再現)’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 ① 소설을 읽는 일은 소설 속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나 주변 인물들의 태도 자체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된다.
- ② 소설은 그 근본이 이야기니까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글은 속도감도 적당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은 물론 감칠맛 나는 연모도 지니고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 ③ 소설의 핵심은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 글에서는 별다른 외적 갈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소설의 묘미를 맛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된다.
- ④ 소설의 본질적인 기능은 작품이 제시하는 주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이 글은 가족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감이 간다.
- ⑤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이 글은 해방 직후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았다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시대상은 그리고 있지 않아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201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베풀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지회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상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요, 그 바닥들의 고품, 그 언저리들의 바를,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이나 탐스럽게 호맛에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살만 된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자겠어서 아무루 안 데리구 왔습디다.”
“오늘루 갈 걸 뭘 허오우?”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재벌 허러 왔더우.”
“서울루! 재벌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났을 원이 없겠디.”

하고 어머니는 말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큼 그처럼 단순히 특별할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처럼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와이들인 자기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서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한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씩 일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살을 양육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로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중은 삼림집과 저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경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열한 것, 열하기는 하나 살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게지만 그것은 세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벽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떼다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벌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도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깐 들었다. 그리고,
“질심이나 먹어라. 나무 좀 생각해 봐야 대담허겠디.”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윗들을 올려놓으랴 들어가 그도 점 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헛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철 놓 제 내가 어려서 왔는 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칼을 써뎌를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냐오?”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더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난던 생각 안 하니? 시켰사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것 사팔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칠찰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리 댜겼디. 네 어머두 그 다리루 가발 타구 내 집에 왔어. 나죽건 그 다

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시을 잘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디.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뎌를 흘려 모신 돈으로 장 만친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리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겨구, 저 사랑 마당 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 뵤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판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길이 어엿으며 나라가 어엿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디구 땅이 뵤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묻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놓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실팍 버려두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투박한 뵤지 않드라.”
“…….”
- 이태준, <물다리>

1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며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성’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성’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흡수하여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성’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울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한 뵤 허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라니와, 쉼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니,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쉼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니, 이 층, 삼 층, 사 층…… 쉼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니,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숫이 불려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어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크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쫘미조각을 둘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들의 앞장을 서서, 풍덩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걸잡을 수 없게 들렸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숲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물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매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런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나, 임바네스* 입은 빈 주사며, 중산모 쓴 포퓰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저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각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면, 그것들은 그만쯤 행복될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나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울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든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 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타내리지만, 그것은 터는 범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얽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들어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뻗혀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걸잡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걸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너씩,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오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씩 나며, 그제 아버지가 ‘전차’나 태위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디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 남자용 의투의 일종.
- * 각정이 : 거지.

18.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에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2010학년도 수능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탄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 좁은 판자밭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져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별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옛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술, 과일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앓을 자리와 술상을 뜬 뒤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령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러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억

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좋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친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마무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제(齋)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 화안 취갈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다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지숙, '만복사저포기' -

* 대상 :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18.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죽은 이와는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위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③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받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2004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중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줘 위 등에 얹고, 머리를 땅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만나니 들쭉했다. 아나니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말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핏 보이도 절색이었다.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림못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걸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뒀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이웃 노파를

불렀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여덟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유.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 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남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에도 거짓말을 꾸며 댔다.

“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피코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혹!”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같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파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시면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곧이틀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병들어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밤이 아주 갑갑하여 겁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도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켜다. ㉠ 정적이 쌓여 잠이 깊
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육, 심생전(沈生傳) -

* 운중가, 소광종고, 소광중동: 서울의 지명.
* 계사: 회계년.

27. ㉠의 상황에서 유희를 만만 노레도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속의 끝없는 사연을 세세하게 읊거다가 달빛 비친 사장과 비단 휘장에 넉 계신 곳 전하고자 그제야 알뜰히 그리워하는 줄 짐작이나 하실까
- ② 꿈이 날 위하여 먼 데 님 데려왔거든 간절하고 반갑게 여겨 꿈 깨어 일어나 보니 그 님이 성나서 갔는지 간 곳이 없어라
- ③ 각시네 꽃을 보소 피는 듯 시드나니 옥 같은 얼굴인들 청춘을 매었을까 늙은 후 찾는 이 없으니 뉘우칠까 하노라
- ④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취 날락시킨 님의 집 창박이 돌길이라도 짧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⑤ 아아 내 일이어 그릴 줄을 몰랐더니 있이라 하였더면 갔으랴만 제 구배어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2003학년도 수능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문자]는 각각 [중문자]에 해당하는 [한글]을 선택하시오. [가]는 [가]의 [가]에 해당하는 [가]를 선택하시오. [나]는 [나]의 [나]에 해당하는 [나]를 선택하시오. [다]는 [다]의 [다]에 해당하는 [다]를 선택하시오. [라]는 [라]의 [라]에 해당하는 [라]를 선택하시오.

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신 소자를 데하여 호느끼며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 부인의 은덕으로 소자와 둘째 공자(公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매 문득 독수(毒手)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소자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부(壽仙樓)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아아, 정 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하니, 소자 또 대답하지 않더라.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대, 심씨 시비(侍婢)를 시켜 소자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네 년이 감히 흉심

(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 중 취선과 모인 것이 아니냐?” 하니, 소자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린 따름이라. 심씨 또 화친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꿇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물기를,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꾀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기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 아니고, 혹 인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배푸소서.” 소자 여짜오되,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쇠채찍을 잡고 소자를 치려 하니, 공자는 방성대곡(放聲大哭)한대,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임씨를 꾸짖어, “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나냐?” 하더라.

이때 비복(婢僕)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호느끼더니, 마침 빙신의 약혼자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배 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유생이 큰 벌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시묘(侍墓)하는 곳에 가니 춘이 없는지라. 동자가 한송정(寒松亭)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 보니 과연 대공자(大公)란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 헤치고 자고 있거늘, 유생이 탄식하기를, “쫓쫓, 도적(盜跖)과 유학(柳下惠)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면서, “그대의 집에 큰 변안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 보라.” 하니라.

화춘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씨 바야흐로 계항으로 하여금 빙신 소자를 매질하고 취선은 이미 6, 70대를 맞고 다 죽어 가는지라. 심씨 화춘이 오자 손뼉 치고 필적필적 뛰면서 소자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격노케 하니,

화춘이 이르기를, “소자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물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고요, 아까 유생이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성씨 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용가하여 생각이 옹졸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라. 내 비복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환관 붙어 보리라.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리오.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리니 내가 응당 네 앞에

서 결단하리라.” 하니,

화춘이 부득이 화친 공자를 붙들어 와 가족한 때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 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장(杖)에 혼절(昏絶)하는지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 도적: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도적.
유학: 도적의 형, 어진 인물.

33.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화친과 화춘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1.8점]

<보기>

부모의 뜻이 의미(義理)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따르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헤치는 것이라면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열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諫)하여 반복 개진(開陳)함으로써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 이이, 격몽요결 -

- ① 진아, 네 어머니로 인해 애틍한 심정이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 ② 춘아, 네에게는 집안의 분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니 분란을 일으킨 진과 빙신을 혼계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라.
- ③ 진아, 네 어머니 앞에서 통곡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당당하게 네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여라.
- ④ 춘아, 네 어머니의 심정과 처지를 잘 이해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주선하도록 하여라.
- ⑤ 진아, 네 어머니께서 비록 너를 미워하시는 하시지만 본뜻이 잘못되지는 않았으니 그 뜻을 받들어 묵묵히 따라라.

2001학년도 수능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 나짐은 이미 병화(兵火)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저저길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 주는데 낭랑에서 발자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중략>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함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흉사에도 가지 않고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급심 쯤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씩이나 가약(佳約)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기 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하고는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꾀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天帝)께서는 철과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어 하나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무춘(玉樓春)’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떼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구슬 꽃 떨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널린 유해(遺骸)는 묻어 주는 이 없고 얼룩진 유혼(遊魂)은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고당루(高唐樓)에 한 번 내려온 무산(巫山) 선녀 개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두 세계가 아득히 멀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

한 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감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남아 목숨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고인(古人)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다 한 것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담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좀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에 함께 흠으로 돌아갑시다.” 최씨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첩은 이미 귀신의 명부(名簿)에 실려 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冥府)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낭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첩의 유골이 모처(某處)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 나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첩씨는 말을 마치고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첩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절의(節義)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지섭, 「이생규장전」

2000학년도 수능

[50~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각설 이 때 한림[유연수]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 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 어 현인(賢人)을 방출하고,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자의 정이 인아(鱗兒)에게 단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무수히 탄식하며 악주(岳州)*에 이르러 강에서 방향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간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다.”

오래 떠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우로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구의산(九疑山)*과 소상(蕭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한림이 방향하며 탄식하더니 흥연 벽 위의 글을 보니 크게 썼으며,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육은 물에 빠져 죽노라.’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대성통곡 왈,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이여.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리오. 내 이 미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 하리오. 슬프고 슬프다. 보인이 무슨 죄로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죽었느냐?”

굽어보며 방성대곡(放聲大哭)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천지가 잠담하더라. 이 때 해는 서산에 지고 안개는 동정호에 일어나니 한림의 무한한 비회(悲懷)와 부인의 구천(九泉)에 사무치는 애원(哀怨)이 전후(前後)가 똑같더라.

(나)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간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漉筆)을 적시니 밤드도록 지어나 한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한때 도적이 창고를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뿔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함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기를 바

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강이 탁치니 몸이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적당(賊黨)이 의쳐 왈,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라?”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왈,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계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홀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띄우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중략……)

한림이 급히 불러 왈,
“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하거늘 이 때 묘화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보되,

“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왈,

“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바빠 행하여 수증의 어육(魚肉)을 면하게 하라.”

말을 마치지 못하여 조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 왈,
“여동은 바빠 배를 대라. 그 배 안의 행인이 살인한 도적이 배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 오라 하여 왔으니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바빠 배를 대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董淸)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왈,

“나는 경성의 유연림이요, 저 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너희 무리 지어 죄 없는 군자를 해코자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지 아니 하리오.”

모든 도적이 왈,
“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이니 적당이 하릴없이 돌아가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악주, 동정호, 구의산, 소상 : 중국의 지명

52.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사씨의 심경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까마귀 흰 빛을 시샘할세라
청강에 기적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② 문노라 벽리수야 굴원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문힐 땅이 없어
청파에 골육을 씻어 고기 맺속 감추니라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밭났으로 흐르거든 옛 물 있을소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도다
- ④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우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감아서 울어 밤길 예눅다
- ⑤ 욕심 난다 하고 몸살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님이 내 모습 보느니라
한 번을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2) LO

2003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온몸이 그늘거리고 우서 잠은커녕 진드근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던가는 기억해 낼 수 없다. 내가 다시 결혼 잔치가 끝나 갈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 발마당의 모닥불은 거친 사위가 버리고 사람 하나 열선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풍장 소리와 노랫소리는 사립 울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명석 너털 뉘네기만한 안마당엔 어른들이 곱걸음으로 둘러 서서 모두가 영덩이를 궁실궁실 들쭉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참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구성진 가락은, “석탄 백탄이 타는데, 연기만 쟁쟁 나는데에…… 이 내 가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키가 모자라 사람 다리만 백백한 족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한 손으로 주안상 가장자리를 두들겨 가며 앉아서 노래하는 어른,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그이는 아버지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얼마를 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분명 아버지였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석공네 울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일 수가 없으려면, 모든 것은 눈에 보인 그

대로였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도 올안은 들어가지 본 적이 없는 터였다. 일가 간인 한산 이가네로서 노인을 모시는 집안이거나 당내 간의 사방이라면 터러 출입이 있었을 따름이요, 그것도 올안에 발을 들인 일이란 한 번도 없던 터였으니, 하물며 전에 일갓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네 집이었든가. 신 사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꿇어앉은 석공은 연방 상근방글 웃어 가며 솟웃솟웃하는 신병을 어찌지 못해 답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 사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드니 석공은 주전자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 들자 신 사방은 일어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때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이나 그것은 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완내천 백사장에 강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들뱅이까지도 전을 건어치를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으며, 산천이 들렀다 놓인다 싶게 불 뽕뽕 응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로부터 찬동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선, 액면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며 어렵지만 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럴 법이 있을 수 있던 말인가. 남의 집 올안 출입에 와 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북스러움도 **㉠** 가서지고 있었다. 명석 가장 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 타래를 내던진 쌍태 아배와 복산 아배,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겨움에 감싸여 흐른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배움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나는 이만큼 뒤쳐져 걷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우러르니, 달은 어느덧 자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마만한 하늘을 두른 채 왕소나무 가지 틈에 머물고 있었으며, 몇 동산 술수쟁이의 부영이만이 잠 못 들어 투덜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 번 없이 여전 근엄하였고, 나는 버거하게 지쳐 놓은 대문을 돌켜끼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여닫으며 들어가 이내 곤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요 위가 절편하니 한강이었고 아랫도리가 결레처럼 척척했으나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삼십 년을 모시면서 보기를 침 보았다. 아마 평생 침이실 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저만 침인 중 알았더니 아씨두유?” 웅성이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 안 일이지만,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보인 일이란 그날 밤에 아버지

가 손수 행한 바의 모두를 말함이었다. 귀로에 한쪽 발을 헛디뎠던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마당가 우물 도랑물에 젖어 있었다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아버지의 거동은 오랫동안 여러 동네의 큰 화젯거리였을 줄 안다. 모두들 처음이며 아울러 마지막일 터임을 머무어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석공의 추적이 일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 놀았던 마당으로서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번 객스럽게 돌아 보신 장소라는 데에 보다 소중함이 느껴져서 잊지 못해 해 온 사실을 밝혀 두고 싶다.

- 이문구, 관촌수필 -

55. 윗글을 TV 드라마로 만들면서 '장칫집 장면'을 위해 <보기>와 같이 아의 세트를 구성하였다. 원작의 시정(靑靑)을 유지한다고 할 때, 카메라를 이동, 배치할 곳은? [1.8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01학년도 수능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의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 중에 우리 집에 피난의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 때 난데없이 구령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출도를 한다.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칼락을 태우면서 구령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섞이! 섞이!”

외할머니의 권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걸을 거저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영이나 지발 성처서 먼 걸음 쉼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쉼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령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친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 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자나!”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고모가 말뚝을 네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론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칼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하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방울이 훌쩍한 불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

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라고 한다레까*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띵 해냈다.

“사본*도 벌시런 말씀은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아한티서*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하여 할 일을 사본이 대신 말었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 시렸고요.”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네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 추시리까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열러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쉼안히 거처하시나 사본택 터주 노릇을 퍽퍽히 하고 있을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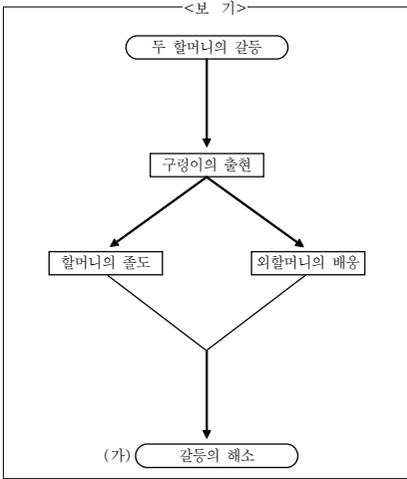
④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태번에 기운이 꺼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원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멧 술갈 흘려 넣은 마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다 보다. ㉣입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잠마였다.

* 한다레까: 큰 싸움
* 사본: 사부인(查夫人)의 속음, 사돈덕
* 아한티서: 애한테서

47.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가)에 해당하는 장면은?



- ① 할머니가 삼촌을 기다렸다.
- ②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였다.
- ③ 고모가 할머니에게 경화를 이야기하였다.
- ④ 외할머니가 큰방으로 건너왔다.
- 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2006학년도 수능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에게 여주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업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변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제주 없 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업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앞드려 바라 읍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화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앞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까?”
 천자 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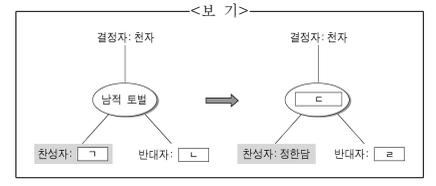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주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썬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오. 앞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 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앞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보이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옵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주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시이다.”
 천자
 “옳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썬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말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베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 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입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열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있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며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단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올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올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침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뱃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나.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뒀던 말 둘러 타고 도망하여 가리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천천 구름 속에 번개같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앞드려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있어져서 반생만사 기결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 한 후에 앞드려 주왈,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 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49.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ㄱ~ㄴ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그 | 느 | 드 | 르 |
|-------|-----|-------|-----|
| ① 유심 | 정한담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② 유심 | 정한담 | 사당 참배 | 최일귀 |
| ③ 정한담 | 유심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④ 정한담 | 유심 | 사당 참배 | 왕공렬 |
| ⑤ 정한담 | 유심 | 조공 정수 | 최일귀 |

2005학년도 수능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 금궤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활에 달걀을 넣고 불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황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 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四門) 안에는 ⑥ 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람을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궤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꼭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우리 소국의 궤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궤문에 내 모자가 닿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궤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궤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 털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쭉 들어서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데라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

2. WX (1) 지문-A

2011학년도 수능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호호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었했다. 바깥은 ㉠갓눈이 흠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아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기 있네.”

동생의 허리를 툭툭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해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친친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벌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어이야이.”

㉡ “……”

“난 원래 다리에 ㉢담즙이 있는데이. 너무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친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썩은 좋다.”

㉤ “……”

“저 말이다, 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어이,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야이.”

㉥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멍멍히 마주 쳐다보다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나.”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질똥거렸다. 혼잣소리로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제 좀 그만 걷지

었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청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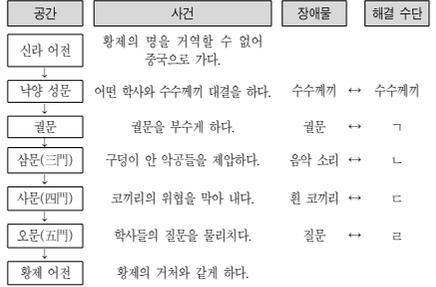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덩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정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20번과 2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0. 해결 수단의 ㄱ~ㄹ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짓는 것은? [1점]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50자 모자 | 구렁이 | 누런 벌 | 시 |
| ② 50자 모자 | 누런 벌 | 시 | 용상 |
| ③ 구렁이 | 악공 | 50자 모자 | 누런 벌 |
| ④ 구렁이 | 50자 모자 | 용상 | 시 |
| ⑤ 누런 벌 | 악공 | 용상 | 구렁이 |

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흠뻑 결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앞은채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췌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웠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럽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췌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호호호.”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머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걸똥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셈이었다. 들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훑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 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할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아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술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툭 찌르고는 건던 자리에 툭췌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빼두대? 빼두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43.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친친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 이 작품의 제목은 본문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친친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회생을 보여 준다.

2010학년도 수능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다른 눈썹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예췌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연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남지도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같은 것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땀땀 싸워 주며, 부지런하리 들기로도 남보다 뒤집질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정발했던 것도 남의 집 뒷수왜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나, 온갖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러구 용쟁이가 그렇당개.”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풀일꾼, 그리고 어리친이나 트림전을 보아 게 뭇은 하던 장들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능력 보였음이나, 온갖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

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썩 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끄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할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橋前婢)*와 난봉난 행랑 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뒤편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돌면 요가타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어섯 가구뿐으로 일년 내내 대사 한 번 지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 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제민들을 들어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제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 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재꾼이 남루한 낫친 사람은 모두 전제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제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대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제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일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제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람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A] 그런 중에도 용정이는 조금 달랐다. 그녀들의 살아온 이 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다면 거였 다. 굶다 못해 이불숨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흙이불을 덮는다는 가, 빈번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재꾼이 그처럼 비평명이 풀 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제민만 오면 어머니를 줄라 무엇이 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 면,

“옥상, 오후에 사 떡소.”

하며 들어붙던 절뚝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 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저 애비가 모집 나갔나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견디겠슈.”

용정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파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용정이는 시습지 않 고,

“쪽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한테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

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 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학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 었다.

[B]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단기 수월했던 말이 주제 의식이니 주제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 다. 이력하는 것이 주제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제성을 지 키는 것인지 알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 접 받기 실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제 의식이나 주제성이란 말 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절이나 지절어 대지 않으면 행 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용정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 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용 정이의 태도를 주제 의식, 또는 주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 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경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 에 나와 벌여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 향품배 :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 교전비 : 혼례 때에 신부가 테리고 가던 계집종.

41. 위 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관촌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짧막하게 서술한 전통적 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 '인물 소개 - 주요 행적 - 인물 평판'의 순서로 구성된다. ㉡ 서술 대상은 주로 출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 행정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A]는 ㉠의 '주요 행적' 중 하나에 해당한다.
- ② 용정이가 ㉡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 이다.
- ③ 서술자는 ㉢을 '주체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 나타난 세태 비판적 태도에서 ㉣을 엿볼 수 있다.
- ⑤ [B]의 어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수능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 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 까?”

“중요한 걸 물어보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도 한 두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 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쨌방 무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 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때 어쨌방 발작 을 보고는 바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 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 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 씀입니다. 환자예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 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 도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중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쨌방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 쨌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 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잠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짝 끼는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관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본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 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종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목이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목 한 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함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 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반짝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 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 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 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

아들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연하고 있는 모양 이었다. 박준은 이야기가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A]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기 자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 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무시 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 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 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 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정준, 「소문의 벽」 -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점]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 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 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 문’을 뜨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 문 뜨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 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 사회적 말문 뜨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 을 강요 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 하는 인물이었다.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 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 문 뜨기에 상응하는 것이었.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 심 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

- ④ 유년의 기본 나쁜 기억, 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쓰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2012학년도 수능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行義)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리(東里寡婦之間)’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밭,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뱀이 반짝이는데, ㉡밭 안에서 흘러 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뜰름으로 들어다보니, 동리자가 북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는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쪽 선생이 웃기를 바로잡고 절않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방음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박박박, 가마술과 세발술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다.”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했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렸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늑은 천 년을 묵으면 문갑하여 사람 시늬를 할 수 있다 하니, 지진 틀림없이 여우란 늑이 북쪽 선생으로 문갑한 것일 겁니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태낮에 그림자를 갈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러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쫓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단다가 그만 들간의 구멍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뱀이 길을 막고 있었다. 뱀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꼬를 싸쥐고 머리를 원뿔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급영급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뱀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태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길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업을 취합니다. 뱀님의

이름은 신훈(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습니다.”

뱀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들건대, 유(儒)!란것은 유(兪)?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엔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져서 면전에서 아침을 떠나 누가 믿을것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뱀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뱀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있드되다가 일어나 영겨주춤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체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넛이 밝았는데, 뱀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쪽두서백에 ㉤뜰밭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걸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절>

[어휘풀이] 1)유(儒) : 선비. 2)유(兪) : 아홉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쪽 선생의 위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갈출 수 있다’는 말은 북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지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쪽 선생이 뱀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쪽 선생이 뱀분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 WX (1) 보기-B

2001학년도 수능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알의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 중에 우리 집에 피난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진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절명의 말전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녀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 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섞이! 섞이!”

외할머니의 권 목적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민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영이나 지날 성허서 먼 길을 켄안허 가소. 뭇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켄안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야.”

장마철에 무성히 뜬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고모가 말뜻을 제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체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방울이 흠뻑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당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라고 한다레까*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뚝한 눈을 저쳐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되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아한테서* 얘개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하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 시웠고요.”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께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힘이나 잘 추시리구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켄안허 거처옵시나 사분덕 터주 노릇을 퍽퍽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변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기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감들기를 기다려 구원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멧 손갈 흘러 넣은 마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삼촌을 기다리던 그 절박한 기간

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정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절박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르려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다 보다. ㉤입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 정말 지루한 잠마였다.

*한타래끼 : 큰 새송
 *사분 : 사부인(丈夫人)의 속음, 사돈택
 *야한타서 : 애한테서
 - 윤홍길, 「장마」

51.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자 한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해 토론 이데,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 점]

<보기>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둘째, 우리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어떻게 찾아내 드러낼 것인가이다.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①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사투리 특유의 어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②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③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내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④ 이 작품에 나오는 토속적 사머니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어떻게 공감시킬 것인가?
- ⑤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6·25 당시 우리 농촌 특유의 장마철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1998학년도 수능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에, 자기 부친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드라고 화평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 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대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곁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대.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대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년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유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옆으로 갈라 앉았습니대.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청신채라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채려야 할 것이 너가 암만하여두 내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나와서, 삼년이나 다직* 사 년만 쪼들어 나머지 그들은 지가 목적인,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목적헌 경부가 되야 갖추서, 경찰사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니까두 너두 정신을 바짝 채려 갖추서, 어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나……? 아, 동생놈은 버제한 경찰사장이.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맵기구 있단! 남 부끄러서 어쩔 티어? 응……? 아 글썽, 군수 되구 경찰사장 되구 허머년, 느덜 종구 느덜 호강이지 마,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허던 것두 다 느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죽통만치 두 상관없어! 알아듣나?”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헹헹, 점잖은 맑은기침 소리가 납니대.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와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대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졌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입니다.
 “……맞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남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포옥 맞겠습니대.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높이 경시청에 불렀대구요!”
 “오영?”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영덩이를 쫓- 쫓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대. 모여선 온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재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불렀했다는 뜻인데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예틀…….”
 “오영?”
 - (중 략)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벽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칩니대.
 “화적패가 있나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

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요…….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응……? 제정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어,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어,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들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따져 놀 부랑당패에 참살*을 헌단 말이어, 응?”
 - 채만식의 「태평천하(太平天下)」에서

*다직 : 기껏
 *영각 : 황소가 길게 짖어 우는 소리
 *참살 :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하는 것

58. <보기>는 밑줄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점]

<보 기>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 형상화된 세계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우선 당대의 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으나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상이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시류에 영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윤직원 영감 같은 인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 작품은 실감나게 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에 대항한 인물들은 무척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이런 것들이다.

- ① 윤 직원의 헛된 욕망을 보면서, 재삼스럽게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다.
- ② 지금의 내 성격으로 보아 내가 당대에 태어났다면 종학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 ③ 종학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제에 맞서 대항한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④ 윤 직원의 소위 「태평천하론」을 접하면서 역사 의식이란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⑤ 나는 과연 윤 직원이라는 인물과는 달리 나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는가 반문해 보았다.

2012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던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되, 그 바닷물의 고를, 그 언저리들의 비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도 탐스럽게 호투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반(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데나 뵈 일이 아니었다.

(중 략)

“헐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자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대.”
 “오늘루 갈 걸 뭇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가서 재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재벌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뵈은 원이 없겠대.”
 하고 어머니는 땅보대, 조상님들 산사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들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시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씩 일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고향 편한 자리에 삼출 양육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제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출은 삼림집과 직공들의
 [A] 합속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경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열한 것, 열하기는 하나 삼만 원이 될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단 오천 원쯤은 받았지만 그것은 세금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관리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원원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살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따금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해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대.”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뭇물을 울려놓고야 들어가 그도 걸

(3) A-B

2013학년도 수능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쉼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있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울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인데, 전차 밧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A] :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신차도 전차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쉼 세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숫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재물이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집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놀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걸잡을 수 없게 들떠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더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숲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나,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족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나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이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격적 위에서 뿔뿔고, 그러는 각정이* 태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엔,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심상을 받았다. 침심을 자시면서였다. “린, 요즘 사람들은 헛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놓 게 내가 어려서 왔는데 불과 여남은서 거들던 돌인데 정정 수심 명이 한나칼을 써를 히다 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킨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들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엿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랄헌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친할 까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땡졌다. 네 어머니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친금이 쏴아전데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밧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사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리나온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겨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분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리러로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판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있으며 나랴가 어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디구 땅이 원지두 모르구 욕심난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돌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실만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귀이한 사람들로부텐 췌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설’에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들리라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얇판 좋은 구경이래두, 밤낀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읍지, 읍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든 ‘승강기’라는 것이 있디지 않나. 수길 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헝기증이 나타러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철망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 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뻥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겁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 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곁로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너식, 놀라기……”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를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마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씩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췌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 각정이 : 거지.

20.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어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즐거움을 이룬다.

- ① ‘창수’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낀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가, ‘어른같이’ 뜯는 물음에 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2011학년도 수능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신비 유행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영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끊었으나, 궁녀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의 폐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었겠?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치게 지성으로 말민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짐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허투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심어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해 달이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겠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는데, 웬 놈이 궁궐 안에서 시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 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 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吉)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들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 있을 때 마음 씀씀이가 어떨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과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엄히 갖추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피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체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조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조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49.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 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을 억압하는 ‘대군’은 그들에게 배운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반면, 음모를 꾸민 ‘특’은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된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위기도 어느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띠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철예하게 드러낸다.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군.
-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난다.
- ⑤ 궁녀들에게 내리건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 밖에 없었다는 ‘은심’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2009학년도 수능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말을 두었으나 심옥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삼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께서는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택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가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물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말이 제대를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수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눈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뿔뿔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부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척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추세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듣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은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기를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 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얻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냐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음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진안(眞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짓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찢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 벗을 부르는 소리.

* 진안 : 진통 혼래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⑤ 초월계의 선인인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2007학년도 수능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푸루 날아 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득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잊어지고 자빠지며 오립산 험한 산을 반성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음속하니 정육(程昱)이 여쭙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아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피보옵소서." "아야, 진정으로 조용하나?"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피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곱푼 머리에서 메추리 표무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육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보라."

"눈치 밟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았으니,

"야 그제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뱀비에 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퐁이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피보니,

(다) [종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울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저거러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않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연고, 귀족도 귀족도 불어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촌비 노락 한때로구나, 소탕 소탕 저 흉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금일 패진이 어인 일고, 임뻘죽 임뻘죽 저 뻘죽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갈 길을 피로만 났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만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쑥군 쑥쑥군. (중략) ㉡ 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재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어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육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옛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립산 앞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 얼굴은 현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불결이라. 이리 허리 굽의 팔, 늑포업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내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이는다 모르느냐?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뺏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일른 서를 쳐, 남에서 일른 복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멧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멧기령 베고, ㉤ 백승관이 쟁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

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다.

- 「적벽가(赤壁歌)」 -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추나라의 군사(軍師).

4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세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세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던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진경 상황에 얽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연고'에 이어지는 '귀족도 귀족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족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흉년새가 '소탕 소탕' 하고 우는 것은 '소탕(솔뚜쟁)'이나 '솔이 텅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네.
② 뻘죽새가 '임뻘죽 임뻘죽' 하고 우는 것은 '뻘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아 냈다고 할 수 있겠네.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회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⑤ '쑥군 쑥쑥군'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2013학년도 수능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막 씨 줄은 북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기를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날이 알가 근심하더니, 심 삭에 미치는 산짐이 있어 ㉠ 초막(草窟)에 었드렸더니, 해산

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환란 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겨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둘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지라.

막 씨 해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볼 땐 때에 아궁이에 들어졌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 환대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침터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일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문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비치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움직 아니하여 임동실한데 한테서 남의 방이를 쥘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

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태와 마른 테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흙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의지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놀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절문(旣門)*을 세워 잠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자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니 주야 해풍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해 공이 주야 병축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불까 하였더니 십여 년

준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건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며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2014학년도 수능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부부의 줄거리】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목녀, 천요성, 홍란성, 재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운 소자, 황 소자, 강낭총,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영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낭총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 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말처에 이르러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평준하거늘 강낭총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짊고 있다가 웃으며 강낭총을 맞아 왈,

“강낭총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낭총이 ㉡말연히 깨달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낭총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러웠는지라. 강낭총이 운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낭총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녀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지는지라. 보살께 운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목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재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낭총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미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미 생기도다.
정미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낭총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 온 것이로다.”
(중략)
강낭총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엮여져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㉘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㉙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㉚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

- 전.-
* 산짐 : 해산의 기미.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15.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④ 금방울이 ‘나는 세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서십 년 후에 다시 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이다.” 강낭총이 운 왈,

“보살은 누구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낭총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낭총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영과 운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말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낭총더러 왈,

“네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영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감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봉 대승사에 개신대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 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알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울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두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장건하였더니, 과연 그후 서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영은 다시 출장임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운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낭총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영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삼육 인은 각각 임신왕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삼 인은 왕공 부인 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루몽』의 환몽(幻夢)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리 위하여 천상계에 복귀한다.



- ① ‘강낭총’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② ‘강낭총’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③ ‘보살’이 ‘강낭총’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장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

의 보답이군.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3. TS (1) 안 TS

2004학년도 수능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배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본 공장에 갔다.

제본 공장 별 갈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딱딱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지기를 하거나 천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집면서 화차가 달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제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깔켜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착을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 다 크고 몸놀림이 썩산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물 개금밭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편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랑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렸던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보다도 파를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싫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짚수세미에 아궁이에서 굶어 낸 고운 재를 묻혀 편죽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큼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난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를 뒤엎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복에 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렇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되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뽀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댔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지옥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난 날 지옥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중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지옥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년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차마 밀으로 켈터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骸가 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회계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지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땀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고 거대한 벽은 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월여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삭발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지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삭발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 큰 드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지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찹찹 침을 빨아 냈다.

회중이 약을 먹고 지달라나 봐. 아냐, 회중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

면 머리털 뿌리까지 뿜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지옥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득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31. [A]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썼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본 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놀다란 굴뚝이 있는 제본 공장, 펼쳐진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있었지요. 나이 많은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털어 놓은 밀알....., 밀알은 율음이 흘러지고, 대갈대갈 이빨에 부딪치곤 했지요. 딱딱한 껍질이, 달고 따뜻한 침에 녹아, 속살을 쫄 때.....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던 밀알들, 우리의 무릎함을 달래 주던..... 밀알이 제본 고무질의 걸린 맛을 낼 때쯤, 우리는 절로에 달곤 했습니다.

- ㉠ 회고조의 목소리가 두드러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잘 드러낸다.
㉡ 중심 제재를 더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준다.
㉢ 호흡을 느리게 하여 과거의 경험을 음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가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혀 준다.

2000학년도 수능

(55~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조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 울타리 옆는데 ㉡ 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지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단,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상 땅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어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계다가 조금 뒤에는 계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겹던 바른손을 뽐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뽐뽐이 쥐였다.

“노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계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니, 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세근세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망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얼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동으로 형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꾸니로 한번 모지게 후러매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러면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노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계를 얻어 땅을 부지므로 일상 굶질 거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낸 계,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떨어지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칭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 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 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러면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답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리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뜨고그랬다. 점순이가 저희 집 부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차마 앞에다 우리 씨알닭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짝계를 주먹으로 콕 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자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잠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뽐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적이 앉아서 계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체치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실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 김유정, <동백꽃>

59. (나)의 []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2점]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 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 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보듯 변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악자가 될 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2) 밖 TS

2002학년도 수능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과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免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겹쳐서 몸집도 작으니 ㉠은 산중이 떨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귀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 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은 게 뉘랄게.” 소리 팔 팔 소리 팔팔 강강강강 뛰어오니, 별주부(麗主簿)가 의문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쇠뿔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갑*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 왔던 총(銃)장이 절음승** 끌러 놓고 똥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뇨?”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가 없던 목줄기가 들뜬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떨적이 서서 보며 문자

(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되 오 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朋(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괘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 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씩 앉으며, “뉘라 하시오?” “에,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베풀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천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신생 하나뿐이기로 신생을 모셔 가져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테요? 범보다 나를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려하여 못 쓸테요, 벌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골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멍(口緇)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가급급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아오면 출장임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말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태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맺이 되오?” “문장 조관 있으면서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활썩기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나쁜 의사(意思) 좋은 구면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진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가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제호, 토벌가(免龜歌) -

*부등갑 : 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절음승 : 화약의 심지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 토끼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엄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친 말.

46.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채록 일시 :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 정○○(여, 75세)
· 채록자 :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밧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 보며, “이게 뭐냐? 쇠뿔 같은데?”하며 바로 목 차 놔줬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쪽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용궁에서 내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냐?”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피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들어서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 ① 수정 :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장면을 전환시켰군
② 종설 : 설화에는 별로 없는 한문투 어구나 표현이 사용되었어.
③ 구성 : 서술자가 토끼의 심리 변화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군.
④ 진화 : 설화보다 서술된 분량이 많지만 서사 진행의 속도는 느리군.
⑤ 현실 : 토끼와 자라의 대화가 훨씬 길어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3) 간 TS

2003학년도 수능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온몸이 그날거리고 쑥서 잠은커녕 진드근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던가는 기억해 낼 수 없다. 내가 다시 결혼 잔치가 끝나 갈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 발마당의 모닥불은 거진 사워어 버리고 사람 하나 일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풍장 소리와 노랫소리는 사립 울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멍성 너털 뉘네기만한 안마당엔 어른들이 겹겹으로 둘러서서 모두가 엉덩이를 궁식궁식 들썩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잡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구성진 가락은. “석탄 백반이 타는데, 연기가 평평 타는데…… 이 내 가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타는데…….”

나는 키가 모자라 사람 다리만 백백한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한 손으로 주안상 가장자리를 두들겨 가며 앉아서 노래하는 어른,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그이는 아버지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얼마를 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분명 아버지였다. 당선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석공네 울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일 수가 없으면, 모든 것은 눈에 보인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도 울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터였다. 일가 간인 한산 이가네로서 노인을 모시는 집안이거나 당내 간의 사랑이라면 터러 출입이 있었을 따름이요, 그것도 울안에 밧을 들인 일이란 한 번도 없던 터였으니, 하물며 전에 일가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대 집이겠는가. 신 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꿇어앉은 석공은 연방 상갈병갈 웃어 가며 솟음솟음하는 신명을 어찌지 못해 답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 서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드니 석공은 주전자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 들자 신 서방은 일어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때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이나 그것은 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러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한내친 백사장에 장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물뱅이까지도 전을 걸어치을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었다. 산천이 들렀다 놓이나 싶게 불 뽕뽕 뽕뽕 울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로부터 천둥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시, 액된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며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럴 법이 있을 수 있던 말인가. 남의 집 울안 출입이 왜 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몸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북스름도 ㉠가서지고 있었다. 멍성 가장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러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 타래를 내던진 쌍례 아베와 복산 아베,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겨움에 감싸여 흐른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배움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나는 이만 큼 뒤처져 걷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우러르니, 달은 어느덧 자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

마만한 하늘을 두른 채 왕소나무 가지 틈에 머물고 있었으며, 뒷동산 솔수령이의 부엉이만이 잠 못 들어 투덜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 번 없이 여진 근엄하였고, 나는 버릇하게 지쳐 높은 대문을 들쭉거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여닫으며 들어가 이내 곤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우 위가 질편하니 한강이었고 아랫도리가 걸레처럼 적적했으나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삼십 년을 모시면서 보기를 참 보겠다. 아마 평생 참이실 걸…….”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곤 있었다. “저만 침인 중 알았더니 아저두유?” 웅침이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 안 일이지만,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보인 일이란 그날 밤에 아버지가 손수 행한 바의 모두를 말함이었다. 귀에 한쪽 발을 헛다녔던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마당가 우물 도랑물에 젖어 있었다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아버지의 거동은 오랫동안 여러 동네의 큰 화젯거리였을 줄 안다. 모두들 처음이며 아울러 마지막일 터임을 미루어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석공의 추억이 일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 놀았던 마당으로서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번 객스럽게 놀아 보신 장소라는 데에 보다 소중함이 느껴져서 잊지 못해 해 온 사실을 밝혀 두고 싶다.

- 이문구, 관촌수필 -

5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아버지’의 전기(傳記)의 한 부분을 <보기>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이어질 내용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5장 아버지의 ○○○

검정색 직다 하고 물새야 웃지 마라
구만 리 높은 하늘 너도 날고 저도 난다
두어라, 나는 새긴 한가지니 그나 너나 다르라

- 이택 -

지금도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는 이 시조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 시조를 읊으면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가다듬고는 하셨다.

- ①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서 어들로서 예의를 다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또한 우리 식구들 앞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다.
- ② 언젠가 아버지는, 나는 물론 우리 가족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평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이었다. 비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 ③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의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일가의 행랑살이를 하던 이의 잔치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셨다. 아버지는 통념을 넘어서는 용기와 포용력을 보여 주셨다.

- ④ 당시 아버지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계셨다. 마을 사람들은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아버지를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운 분으로 생각되었다.
- ⑤ 아버지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다. 공적으로는 매우 엄격하셨지만 사적으로는 격의 없는 만남을 유지하셨다. 그렇듯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 주셨다.

2002학년도 수능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바닥이 얼어붙고 먼산에 눈이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상소 출입도 더러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황 진사의 얼굴은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서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란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란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 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 구실을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벌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그가 곧장 진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 관상소에서 어느 장단꾼이 농담삼아 그에게 서진과 춘추를 외게 하여 급제를 주고 진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인데,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 조롱으로 ‘황 진사’, ‘황 진사’ 부르게 되니, 그러나 ‘황 진사’ 자신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싸하게 여겨, 이를 와서는 아주 뽐내고 진사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방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나는 온종일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낮이 **㉡**질 것했을 때다. 밖에서 “일 오나라.”

하는 소리가 마치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같이 바람결에 싸여 들어왔다. 내가 보니 황 진사가 언방 손으로 뭇물을 닦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대체 **㉤**얼어 죽지나 않았나 하고 궁금해 하던 차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진경 만가였다. 나는 곧 그를 나의 방에 안내한 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즉, “거야 친구 집에서 지냈지요. 뭐. 호호…….” 하며, 재미난 듯이 웃었다. “아 참, 완장 선생은 여태 안 왔시우?” “수차 다녀가셨지요.”

“아, 그렇 거꾸 난 여태 한 번도 못 뵈었으니 이거 죄송해서, 호호…….”

그는 숯불을 안고 앉아 또 히히거리고 웃었다. 흰떡을 사다 숯불에 구워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나는 아까 하다 둔 일을 마쳐 해치를 양로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 구운 것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집어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뽐아서,

“관관저구(關關雎鳩)는 재하지주(在河之洲)로다. 요숙수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君子好逑)로다.” 하고 대문을 외곤 하였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채하고 있으니까, “아, 성인께서도 실수가 있던 말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공자님께서 시전에 음금을 두셨거든!”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옆눈으로 훑어보며 마구 기를 뽐아 이렇게 외쳤다.

그래도 내가 모른 채하고 있으니까 그는 화로 걸어서 일어서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뒤로 꺾히고 저고리 설을 위로 쳐들고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는 시늉을 하였다. 나는 속으로 옷의 이를 잡아내어 숯불에 보르려는 건가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한번 나 있는 쪽을 훑어보고 나서 배에 두르고 있던 매물은 전대 하나를 꺼내었다. 전대 속에서는 네 귀가 다 이저리치고 종이 빛까지 우중충하게 **㉥**뭉은 모뎀 사책 한 권과, 백지로 싸서 노끈으로 끈진 감아 맨 솔잎 한 줌과 휴지 조각 몇 장이 나왔다.

“거, 무슨 책이유?” 내가 이렇게 묻은즉, “아, 주역책이지 그냐.”

하고 된소리를 질렀다. 과연 그 **㉦**이저리진 네 귀마다 넓적넓적한 쾌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역책임에 틀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주역책은 왜 하필 전대에 넣어서 두르고 다니느냐고 물은즉,

“아, 공자님께서도 역은 삼천독을 하셨다는데 그냐.” 하고, 된소리를 질러 놓고 나서, 다시 조용히 음성을 낮추어, “아, 여복해 지략의 조종이요? 조화의 근본 아니요?” 하였다.

나는 처음 관상소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하도 지모가 나지 않아 육효를 뽐아 보았노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어서, 그가 평소 얼마나 이 ‘지략’과 ‘조화’를 부러 보고 싶어하는 **(가)** 위인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언제나 몸에 지닌 솔잎 한 줌과 네 귀 모지라진 주역 속에서 우러난 음양 오행의 지모 조화가 겨우 ‘쇠뿔 위에 개뿔 눈’ 흉가루 약과, 친구에게 책상을 들리우고 다니는 것쯤인가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저녁때가 되어 그는 전대를 다시 배에 두르고 돌아갔다. 종종 오라고 한즉, **㉨**매양 신세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며 절을 몇 번이나 하였다.

그 해 겨울, 그는 내가 성이 가시도록 자주 나를, 아니 내 삼촌을 찾아왔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오랫동안 삼촌께 못 뵈어 죄송하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한시를 지어 달라면서 사오 차나 운자를 가지고

왔다. 어디 쓰느냐고 물으면 친구의 환갑 잔치에 **㉩**대노라고 한다.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참봉, 윤 승지, 무슨 참관, **이디 남작** 하고 모조리 서울서도 유수한 대가와 부자들의 이름만 꼽지만, 거리에서 그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나 가끔 친구라고 테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의 말과는 판판으로 황진사 자신보다 별로 유여한 축들도 아니었다.

좋은 구수가 있으니 장가를 들지 않겠느냐고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졸랐다. ‘좋은 구수’가 어땠느냐고 물으면, 단번에 친구의 딸이라고 하고, 어떤 친구냐고 하면 무슨 승지, 무슨 자작하는 예의 대가집 따위를 꼽았다. 색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매양 자기의 누르통통하게 부은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아주 유복스럽게 생겼다고 한다. 내가 웃으며, 색시가 일제 선생 같아서야 좀 재미 적다고 하면, “아, 일등 구수라는데 그냐.” 하고 화를 내었다.

“그렇지만 너무 유쾌해서야.”

하면, “아, 거기 식욕이 들었는 걸 그냐. 아, 여복해 일등 구수라는데 그래도 못 믿어서 그냐.” 하고 기를 쓰곤 하였다.

- 김동리, 화랑의 후에 -

34. **‘황 진사’와 <보기>의 ‘초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초시는 돈의 진요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끼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니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충 건속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 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뽐 지른다. 돌아다보면 윤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겟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에순이 뵈 모래……. 켄-장할 것.”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만 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써야 문화 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네나 파리메치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측지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① 황 진사 : 너나 나나 살 만큼 살았는데, 너무 돈 돈 하지 말라구. 사람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 ② 초시 : 날씨는 춥지, 담배는 피워야지.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

37. <보기>와 같은 노래의 시적 화자는 '윤 직원'의 어떤 점을 비판하였는가? [2점]

<보 기>

무산자 누구냐 탄식마라.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돈다.
감발을 하고서 주먹을 쥐고
용감하게도 넘어간다.
발 잃고 집 잃은 동무들아
어테로 가야만 좋을까 보냐.
피나리 붓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일제 강점기의 민요 '신아리랑'에서

- ① 왜곡된 현실관
- ② 비타협적인 태도
- ③ 소극적인 인생관
- ④ 빗나간 자식 사랑
- ⑤ 체신머리 없는 행동

2005학년도 수능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점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물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습니다.”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 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四門) 안에는 ④ 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람을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켈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쪽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 다들 제 코가 석 잔데, 더 늙기 전에 담뱃값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
③ 황 진사 : 초시문 초시답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몸을 함부로 내두르면 어쩌니? 유희자적 북덕방에서 장기나 두면서 젊은 사 람들에게 공자님 말씀이라도 들려주면 좀 좋아?
④ 초시 : 문화 주택이 즐비한 시대에 공맹을 읊은들 뭣 하나? 난 차라리 금광이나 찾아다니며 기회를 엿볼 걸세.
⑤ 황 진사 : 유희가 잘만 뽐이면야 나도 죽보를 팔아서라도 뭔가를 해 볼 걸세. 지략과 조화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

1998학년도 수능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에, 자기 부친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제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 놈의 세상, 언젠나 망하러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지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겹쳐서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디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반방 꼬쳐만 빼놓고, 서울 아저, 태식이, 뒤재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용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쪽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니 경손 애비, 부디 청신채러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혼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테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청신을 채러야 할 것이 너가 알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허저두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겠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구나와서, 삼년이나 다직* 사 년만 켜들어 나머년 그들은 지가 목적인, 요새 그 목적인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목적런 경우가 되어 갔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디야! 응? 알겠어.”
“네.”
“그러녕개루 너두 경신을 바싹 채리 갔구서, 어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나……?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땡기구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썸,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덜 좃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허년 것두 다 느덜 위허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좃똥만치 두 상관없어어! 알아듣냐?”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행행, 점잖은 발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와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덕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 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라고 꼬집는 소립니다.
“……맛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느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남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고옥 맞겠습디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놀이 경시청에 붙렷했다구요!”
“오영?”
외치는 소리로 컸거니와 엉덩이를 쭈-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진 온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재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랴나? 이게 무슨 소리디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렷했다는 뜻일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여틀…….”
“오영?”
— (중 략)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걸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칩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명(守命)들이 있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요…….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심만 땡 동병(動兵)을 하여서, 우리 조신똥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곱마운 세상이여? 응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라구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땡쳐 놀 부랑당패에 참석*을 헌단 말이며, 응응?”
— 체만식의 ‘태평천하(太平天下)’에서

*다직 : 기껏
*영각 : 황소가 길게 뿜아 우는 소리
*참십 :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하는 것

③ “비록 우리 소국의 켈문이라도 내 모자가 달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켈문에 내 모자가 달는 달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켈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켈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리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빈헤 누런 벌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쭈 들어서서 서로 경쟁하듯 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지라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정의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멍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⑤ 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종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22. ㉠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한히 알고	神策究天文
오묘한 해아림은 지리를 꿰뚫었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만족할 줄을 알고 부디 그만두시오.	知足願云止

- 을지문덕,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

- ① 상대를 높이는 듯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②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있다.
- ③ 재치를 발휘해 상대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웅적인 기개로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13. [수능]문학- 원대소설

2014 수능	문학번호	35	36	37				
	정답	①	③	⑤				
2013 수능	문학번호	17	18	19	20			
	정답	②	⑤	④	②			
2012 수능	문학번호	13	14	15	16			
	정답	⑤	②	②	⑤			
2011 수능	문학번호	40	41	42	43			
	정답	⑤	②	⑤	④			
2010 수능	문학번호	38	39	40	41			
	정답	④	③	①	②			
2009 수능	문학번호	20	21	22	23			
	정답	③	②	②	③			
2008 수능	문학번호	47	48	49	50			
	정답	②	⑤	⑤	②			
2007 수능	문학번호	15	16	17	18	19		
	정답	①	②	②	④	④		
2006 수능	문학번호	56	57	58	59	60		
	정답	③	③	⑤	④	②		
2005 수능	문학번호	56	57	58	59	60		
	정답	②	②	③	③	⑤		
2004 수능	문학번호	29	30	31	32	33		
	정답	⑤	②	②	①	⑤		
2003 수능	문학번호	52	53	54	55	56		
	정답	⑤	②	③	①	④		
2002 수능	문학번호	32	33	34	35	36		
	정답	②	①	⑤	②	⑤		
2001 수능	문학번호	47	48	49	50	51		
	정답	④	①	④	④	②		
2000 수능	문학번호	55	56	57	58	59	60	
	정답	⑤	④	⑤	③	⑤	④	
1999 수능	문학번호	40	41	42	43	44		
	정답	③	①	③	①	②		
1998 수능	문학번호	35	36	37	38			
	정답	③	④	①	③			
1997 수능	문학번호	35	36	37	38	39		
	정답	②	④	②	③	①		
1996 수능	문학번호	32	33	34	35	36		
	정답	④	⑤	①	②	①		
1995 수능	문학번호	14	15	16	17			
	정답	⑤	②	④	⑤			
1994 수능	문학번호	17	18	19	20	21		
2차 수능	정답	④	④	③	③	③		
1994 1차 수능	문학번호	21	22	23	24	25	26	
	정답	②	④	⑤	③	①	②	

8. [수능]문학- 고전소설

2014 수능	문학번호	31	32	33	34			
	정답	③	③	①	⑤			
2013 수능	문학번호	13	14	15	16			
	정답	②	④	①	①			
2012 수능	문학번호	25	26	27	28			
	정답	③	⑤	②	①			
2011 수능	문학번호	47	48	49	50			

	정답	②	④	②	②			
2010 수능	문학번호	16	17	18	19			
	정답	③	④	②	①			
2009 수능	문학번호	47	48	49	50			
	정답	②	⑤	①	④			
2008 수능	문학번호	27	28	29	30			
	정답	②	③	④	①			
2007 수능	문학번호	41	42	43	44	45		
	정답	④	③	③	④	①		
2006 수능	문학번호	48	49	50	51			
	정답	②	③	④	①			
2005 수능	문학번호	20	21	22	23			
	정답	①	①	①	③			
2004 수능	문학번호	25	26	27	28			
	정답	④	④	⑤	⑤			
2003 수능	문학번호	32	33	34	35	36		
	정답	③	①	④	②	①		
2002 수능	문학번호	42	43	44	45	46		
	정답	②	②	③	①	①		
2001 수능	문학번호	32	33	34	35	36		
	정답	①	④	②	⑤	③		
2000 수능	문학번호	50	51	52	53	54		
	정답	③	④	②	①	①		
1999 수능	문학번호	45	46	47	48	49	50	
	정답	②	③	②	③	②	①	
1998 수능	문학번호	45	46	47	48	49		
	정답	③	①	②	①	③		
1997 수능	문학번호	18	19	20	21	22	23	
	정답	④	②	⑤	⑤	①	④	
1996 수능	문학번호	52	53	54	55			
	정답	②	③	③	③			
1995 수능	문학번호	25	26	27	28	29		
	정답	②	②	①	⑤	③		
1994 2차 수능	문학번호	37	38	39	40	41	42	
	정답	②	④	④	③	①	③	